

반응하고 소통하라

휴거를 위한 차원 높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13. 4. 25

작성자 : 주청해

(오후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모순들을 다 고쳐서 꼭 천상천국 맨 위에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순들을 고치기 위해 깨달음을 간구하며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근데, 깨달아야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완벽하게 잘 모르고, 그렇게 와 닿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먼저 해 볼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되어서 행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깨닫고 행한 것에 속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말씀 집중해서 적어.

내가 사랑해서

깨달음에 대한 간구를 하고

나에게 사랑으로 청하니

내가 이야기해 준다.

내가 물어 본 것,

잘 모르면서도 일단 감동되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실을 하는 것은

1차원적인 깨달음의 행동이다.

(1차원적인 깨달음의 행동이요? 더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대로 네 영광과 혼이

찌릿하게 느끼고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함으로 깨달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 옛날 요시야가 나에게 매우 흡족한 삶을 살며,

나라를 위협하는 갈그미스에 대해 내게 간구하니,

내가 애굽 왕 느고스를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움직이게 하여,

아직 미약한 요시야의 나라 대신 들어

갈그미스를 치려 하였노라.

느고가 요시야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느고는 진정 여호와와의 명으로 움직였다만,

그가 어찌 나의 사랑과, 뜻과, 요시야의 간구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움직였겠느냐?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1차원적 깨달음에 의한 움직임이었으니,
우리 성삼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외에도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이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합당하게 움직여 쓰노라.

(와, 신기해요, 주님. 이치에 합당하고 이해가 잘 되요.
그렇다면 주님, 주님께서 단상 설교들을 통해 이야기하신
저희 섭리인들에게 원하시는 깨달음과 행실은 이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겠네요? 맞지요?)

맞다. 맞아.
1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 내 신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2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
바로, 네 온 혼과 영이 가슴 뜨끔하게 깨달아,
진실로 나의 심정을 받아 알고 행하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 모두가 1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을 겪고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감을 아느냐?
1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은사요, 지혜다.
이는 무슨 말이나면,
너희가 오직 성삼위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1차원적 깨달음의 행실을 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의 그 기쁨과
충만한 영적 삶을 맛보게 되고,
그 속에서 계속 느끼고 감동 받아 반응할수록,
서서히 나의 감동으로만이 아닌
너의 자의와 책임분담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더욱 차원이 높아진
2차원적 깨달음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지.
너의 자의라 하여 네 주관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여 만들어진
온전한 신부의 자유의지이니
이는 내 뜻에 합당하도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신입생 시절,
이 말씀을 접하고 영이 깨어날 무렵
1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을 축복하여
영적 행복과 기쁨을 맛보여 주었다.
알고 계속 행하여
항상 기쁨을 맛보며 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서도

육성이 너무 강하여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치솟는 육성으로 내 선물을 던져 버린 자들은
나의 축복과 은사를 무색케 하여
이 섭리에 없거나,
있어도 있는 자 같지 아니하구나.
혹은 주었을 때
바로 흡수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육성으로 세상과 섭리에
두 다리를 걸쳐 계속 휘청대다가,
이제야 점점 깨달으며
돌아오고 있는 자들도 있구나.

(주님, 진짜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1차원적인 깨달음의 행동, 다 빠짐없이 받고 싶어요. 그 지혜로움을 모두 받고 싶어요.)

내가 요새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고 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의한 행동과 말.
그러나 너희가 육성으로
그것을 끊고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그 선물은 소용이 없단다.
끊임없이 두 귀를 영성으로
잘 기울여 들어 보아라.
내가 주는 감동이 들리지 않느냐.
성령 어머니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섭리에서 말씀을 듣고
나 따라가고 있는 모든 자들 알 수 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주는
1차원적 깨달음의 지혜를 받아 행해 봄으로,
내 뜻에 맞는 행실을 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본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스스로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내가 너를 움직여 주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
한 번의 1차원적인 깨달음의 움직임을 통하여
두 번, 세 번의
차원 높인 움직임을 행해야만,
네가 더 수준이 높아지고
깨달아지는 강도도 강해진다.
이것이 시대 보낸 자의
엄청난 지혜와 조건이다.
너희 또한 완전히 본받아

영 휴거에 보탬이 되길 원한다.

(주님,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칭한 신부의 칭에
내 깊은 사랑이 나가도다.
오직 사랑으로 깊어진다.
섭리에서 나와의 영적 사랑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때에 맞지 않게 이루려 말아라.
사랑은, 점차 깊어진다.
진리와 성령으로
점점 그 끝을 알 수 없이 깊어진다.
마음 급해서
발 동동 구르는 자들이 있기로 이야기한다.
한 번 상처가 난 자들도
빠른 회복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자들도
빠른 성장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점차적인 회복, 점차적인 성장,
점차적인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의 속도는 네 깨달음의 행동
즉, 내가 선물로 준 1차원적인
깨달음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여
네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또한
하나님 뜻에 맞는
깊은 인내의 시간에 따라 다르다.

영 휴거가 진행되는 이때,
모두 느끼며 깨달으며 행하고 있느냐.
나 성자는 이미 천국 단장을 끝내었다.
다만 네가 행하는 대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대로,
조금씩 네 집을
더 아름답게 꾸며 주고 있을 뿐.
너를 데려가기 위해
난 오늘도 네 마음과 정신만
뚫어져라 바라본다.
그로 인해 움직이니까 말이다.

내가 성령의 감동감화로

너를 감동시켜 올릴 때
그 기회를 잡고 놓치지 마라.
끊지 말고 바로 이어서 차원 높여 행하기다.
예를 들어, 너는 전혀 마음에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면
너는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나 보다.’
그럼 거기서 끊지 말고 행하여라.
교회에 왔으면
내가 너 부른 것 그리 깨달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차원 높은 행실을 해 보아라.
찬양도 해 보고, 기도도 해 보고
나에게 사랑의 시동을 걸어 보아라.
내가 선물 먼저 주었으니
그 선물 받아 달라는 말이다.
내 선물과 네 반응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서로 반응을 하다 보면,
뜨거운 깨달음의 삶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내가 준
그 1차원적 깨달음의 행실 통해
몇 번 반응하며 주고받다가
뚝 끊어 버린다.
나랑 자꾸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 깨닫는 차원이 높아진다.
늘 삶 가운데 나와 대화하자는 말이야.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 명령에 순종만 하고 사는 자가 아니다.
신부는 나와 사랑으로 대화하는
상대체가 아니냐.
나 사랑한다고 너 혼자 달리지도 말고,
늘 나와 주고받고이다.

(여기까지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다음 날 새벽에 더 이야기해 줄 테니 저부터 위의 주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 보라고 하셨는데 잘 되지 않았습시다.
순간순간, 제 성격대로 혈기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여 다스리기보다 사람 의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민망했습니다. 이후에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체에 답이 있어, 알지?
혼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혼체가 먼저 휴거되어야 해.

혼체가 완성되어야
영이 완성된다.
네 마음과 정신의 실상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네 마음과 정신을 다잡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야.
혼체로 소통해야 한단다.
혼체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야 영도 반응하니까.
네 혼체가 뜨겁게 깨달아야,
그것이 네 영으로 전달되어
너 휴거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혼체를 제대로 알고,
네 육신이 혼체를 도와야,
네 혼체도 네 육신을 돕는다.
휴거되기 위해
육체, 혼체, 영체가 세 겹줄로 움직여야 해.
차원 높고 뜨거운 깨달음으로 혼체를 움직여라.
계속해서 혼체로 반응하라는 것은,
차원 높여 깊게 깨달으라는 것이다.
깊게 깨닫고,
선생과 혼체 통해 소통하며
네 혼체 먼저 휴거시켜 놓아라.
네 혼체가 선생과 친밀하여
서로 뜨겁게 반응하면,
네 영 또한 그리함을 진정 알아라.
네 혼체가 선생의 혼체와 소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네 육의 행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자꾸 신령한 반응과 깨달음으로
혼체를 움직여
선생을 만나고, 선생과 일체 되어라.
그가 혼계 문을 연,
혼계의 핵심 중심자니까,
그와 통해야
혼체 휴거된다.
그와 혼체 일체다.

끝없이 집중해서 노력해야 해.
내가 늘 도와줄 것이다.
깨닫고 행하자.
핵심을 잡자.

사랑의 성자이다. 샬롬.